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4월 수출 사상 최고 수준 기록

□ 유가불안, 원화강세 등의 대외적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냄.

-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.6% 증가한 497억 7천만 달러, 수입은 23.7% 증가한 439억 5천만 달러를 시현하여 무역수지는 5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.
-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출이 79.8%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확대로 선박 수출이 56.1% 증가하는 등 대부분 주요품목 수출이 증가함.
-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을 제외한 원유·석탄·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5.2% 증가하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8.1%, 47.4% 증가함.

□ 지역별 수출의 경우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.2% 증가에 그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25.2% 증가함.

- 경기회복으로 미국 수출이 23.0% 증가하였으나 EU 수출은 7.7% 증가함.
- 아세안 지역과 BRICS에 대한 수출은 각각 44.3%, 14.7%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중국 수출은 9.3% 증가에 그침.
- 특히,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이 70.1% 급증함.

□ 세계경제 회복, 수출 지역 다변화, 현지 생산 확대, 고부가 가치 제품 증가,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 등이 수출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.

-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세계경제 회복 기조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판매시장과 투자지역 다변화로 환율에 대한 내성도 증가함.
- 수출 확대 기조가 일본 대지진 사태의 영향과 맞물리면서 대일 적자가 3월 20억 달러에서 4월 15억 4천만 달러로 낮아짐.
- \* 4월 전체 수출입 실적은 통관실적 잠정치이며 지역별·품목별 수출입 실적은 4월 20일까지의 통관실적 기준임.

(2011년 4월 수출입 동향 등, 지경부 등, 5/1)